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배한주, 조금이*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Flourish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Han-Ju Bae, Geum-Yi Jo*
Department of Nursing, Keimyung Colleg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은 D 지역에 소재한 간호학과 학생 158명이었다.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고,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213$ $p=.007$)가 나타났고, 플로리시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428$, $p<.001$).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34.2%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플로리시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success of nursing students on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and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8 nursing students located in D area.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structur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We found that nursing professionalism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213$ $p=.007$), bu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ccess ($r=.428$,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 on nursing professionalism gave an explanatory power of 34.2%. These results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nd establishing programs that help in reducing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in increasing success in order to augment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Flourish, Nursing Professionalis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주었고, 교육분야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1].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임상실습은 연기되거나 취소되었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임상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전문직의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간호활동 과정이나 그 역할에 관한 직업적 견해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된다[2]. 간호전문직관이

*Corresponding Author : Geum-Yi Jo(Keimyung College University)

email: gyjo@kmcu.ac.kr

Received March 27, 2023

Accepted May 12, 2023

Revised April 21, 2023

Published May 31, 2023

긍정적일수록 직업만족, 간호업무 수행능력,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았고[3,4], 이직의도, 소진, 역할갈등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4,5]. 선행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다양한 매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한 사회적 인식으로 형성될 수 있고, 대학에서 배우는 임상실습과 이론교육 등의 간호에 대한 전문적 교육을 통해 형성되며, 이후 실무경험을 통해 꾸준히 발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 따라서 대학내에서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간호학과에서는 간호전문직 양성을 목표로 간호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임상실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다[6].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임상현장 실습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사고 과정, 감정, 육체적인 상태에 영향을 주어 근심이나 걱정을 느끼게 하는 긴장 상태를 말한다[7]. 그러나 간호교육기관의 양적 증대로 임상실습기관 부족에 따른 불균형으로 임상실습을 위해 대학 소재지 이외 타 지역임상실습, 병동 당 실습 학생수의 증가, 방학기관 중 임상실습 운영 등 열악한 임상실습 교육 여건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8].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병원의 심각한 상황은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감염 노출에 대한 불안과 간호사로서의 증가된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에 부담감을 느끼는 등 다양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 동안에 겪는 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임상실습을 통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전공에 대한 회의를 유발하여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로리시란 웰빙이론이 기반이며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상태로, 일시적인 행복 상태가 아닌 긍정적 정신건강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11]. 따라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상황에서 플로리시는 부정적 감정과 정서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2]. 대학생은 성인인 동시에 가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못한 청소년 후기로 독립이라는 발달과업에 당면함과 동시에 다양한 외부적 환경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3]. 간호학과는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취업률로 오히려 자신의 적성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14].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울(코로나 블루)이 전공만족도를 감소시키고[15],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3].

플로리시는 긍정적 정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부정적 정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17]. 또한 진로, 취업, 학업성취 등으로 스트레스 상황시 스트레스 대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의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의 세 변수를 통합하여 관련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간호사가 되기 위한 출발선에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플로리시와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이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1.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1.4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D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의 표본크기를 선정하기 위해 예측변수는 일반적 특성과 독립변수를 포함하

여 8개였다. 또한 선행연구[14]에 근거하여 중간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0으로 하여,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최소 표본수는 136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중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158명을 조사하였다.

1.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시 소재 Y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승인(2-7008156-AB-N-01-A-2021-007)을 받았다. 자료수집은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였다. 설문지 작성 전에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설명하고, 익명성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의문 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 거부나 중도포기등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은 평균 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조사 후에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1.6 연구 도구

1.6.1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성별, 입학 동기,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항목을 분석하였다.

1.6.2 임상실습스트레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Hwang[19]이 간호대학생들이 개방형 질문에 답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개발한 임상실습스트레스 척도로 총 58문항이다.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된 도구이며, 3개의 영역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구성되어 있다. 하부영역으로 상황특성에는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6문항, 실습환경 9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갈등 2문항, 개인특성에는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과 기술적 요인 6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 외부적 조정요인에는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7로 나타났다.

1.6.3 플로리시

플로리시는 Butler와 Kern[20]이 개발하고 Kim과

Kim[21]이 번안한 PERMA-Profil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ERMA-Profiler는 안녕감의 5가지 요소인 긍정적서 3문항, 몰입 3문항, 관계 3문항, 의미 3문항, 성취 3문항, 전반적 행복플로리시 1문항으로 총 16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완전히 그렇다'의 5점 배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플로리시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6으로 나타났다.

1.6.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oung 등[22]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Han 등[23]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 5문항, 간호의 전문성 3문항, 간호계의 역할 2문항, 간호의 독자성 2문항의 총 18문항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6으로 나타났다.

1.7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은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전문직관에 따른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분석으로 Scheffé test를 사용하였다. 주요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했으며,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하였다.

2. 본론

2.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3세 미만 124명(78.4%), 24세 이상은 34명(21.5%)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여성이 131명(82.9%)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률을 고려해서가 82명(5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성을 고려해서가 57명(36.1%)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28명(17.7%), 보통 112명(70.9%), 불만족이 18명(11.4%)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62명(39.2), 보통 67명(42.4%), 불만족 29명(18.4%)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s)	22-23	124	78.5
	over 24	34	21.5
Gender	Male	27	17.1
	Female	131	82.9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department	Aptitude	57	36.1
	Recommendation of family	13	8.2
	Employment guarantee	82	51.9
	Correspond to score	6	3.8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28	17.7
	Usually	112	70.9
	Dissatisfaction	18	11.4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Satisfaction	62	39.2
	Usually	67	42.4
	Dissatisfaction	29	18.4

2.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차이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는 24세 이상의 대상자가 23세 미만 대상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2.81, p<.001$).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불만족 대상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4.37, p=.014$)(Table 2).

2.3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 정도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 중 평균 2.87 ± 0.68 , 플로리시는 5점 만점 중 평균 2.18 ± 0.81 점, 간호전문직은 5점 만점 중 평균 3.42 ± 0.50 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2.4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 변수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간호전문직관은 플로리시($r=.428,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실습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13, p=.007$)(Table 4).

2.5 간호전문직관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이 24세 이상 ($\beta=.236, p=.001$)은 간호전문직관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임상실습 만족도가 불만족($\beta=-.204, p=.003$) 할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낮을수록($\beta=-.159, p=.020$), 플로리시가 높을수록($\beta=.429, p<.001$)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명력은 3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9.809, p<.001$). Durbin-Watson 통계량은 1.754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차한계(TOL; Tolerance)는 .911~.988로 0.1이상이며, 분산팽창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012~1.097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3.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2.87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24]와 유사하나 Kim[8]의 3.08보다는 낮다. 이는 임상실습 병원의 환경, 학생 수 등 일반적 차이가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도 보통이상의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간호대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25], 스트레스 지속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직관과 전인적 간호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실습과 이론수업을 수행함에 방해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26]. 따라서 임상실습 중 학생들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실습 전 교육 및 교수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의미와 더 좋은 환경적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플로리시는 5점 만점에 2.18점으로 중간이하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16]에서 10점 만점에 6.35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대상자에 비하면 낮으며,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임상실습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7], 일반 대학생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8]. 플로리시는 안정적인 정서와 이타심이 충만한 상태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즉 더

Table 2.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58)

	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t or F	p
		M±SD		
Age(years)	22-23	2.32±0.40	2.81	<.001
	over 24	2.74±0.63		
Gender	Male	2.48±0.73	7.15	.492
	Female	2.41±0.44		
Motivation for choosing nursing department	Aptitude	2.34±0.38	1.82	.145
	Recommendation of family	2.70±1.09		
	Employment guarantee	2.43±0.42		
	Correspond to score	2.43±0.46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2.46±0.24	0.16	.851
	Usually	2.42±0.54		
	Dissatisfaction	2.37±0.56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Satisfaction ^a	3.53±0.57	4.37	.014 (a<c)
	Usually, ^b	3.41±0.36		
	Dissatisfaction ^c	3.21±0.56		

Table 3. Degre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Flourish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58)

Variables	Mean(SD)	Min~Max	Range
Clinical Practice Stress	2.87(0.68)	1.03-4.86	1-5
Flourish	2.18(0.81)	1.0-5.0	1-5
Nursing Professionalism	3.42(0.50)	1.22-4.5	1-5

Table 4.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e Stress, Flourish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58)

Variable	Clinical Practice Stress	Flourish	Nursing Professionalism
Clinical Practice Stress	1		
Flourish	-.099(.217)	1	
Nursing Professionalism	-.213(.007)	.428(<.001)	1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N=158)

Categories	B	S.E	β	t(p)	R ²	Adjusted R ²	F(p)
(Constant)	2.152	.178		12.070(<.001)	.360	.342	19.809 (<.001)
Age(years)	.279	.083	.236	3.371(.001)			
Satisfaction with the amount of practice Satisfied(ref.) Dissatisfaction	-.267	.089	-.204	-2.985(.003)			
Clinical Practice Stress	-.115	.049	-.159	-2.351(.020)			
Flourish	.263	.043	.429	6.080(<.001)			

Dummy variables: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reference=satisfaction); Age (reference ≥ 24); β=Standardized beta
TOL(tolerance): .911~.988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1.012~1.097 Durbin-watson: 1.754

바랄 것이 없는 최적의 상태이다[29]. 따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 증진 위한 플로리시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플로리시는 5점 만점에 2.18점으로 중간이하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16]에서 10점 만점에 6.35점으로 평균보다 높은 대상자에 비하면 낮으며,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시 임상실습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27], 일반 대학생보다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8]. 플로리시는 안정적인 정서와 이타심이 충만한 상태로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 즉 더 바랄 것이 없는 최적의 상태이다[29]. 따라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 증진 위한 플로리시 향상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3.42점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27] 4.08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시점은 코로나 19로 임상실습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은 학번으로 간호사들이 감염위험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현상은 간호사 역할을 수행 하고자 할 때 느낄 수 있는 현실 충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과정과 임상현장에서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을 살펴본 결과 연령과 임상실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확실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지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경우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에 의해 생성된 동기유발로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타 대학에서 이미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다시 대졸자 전형으로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7,28]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습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임상실습 환경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 간호전문직관은 각 변수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았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0,31] 결과와 일치한다.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냈으며[32],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적을 경우에 간호학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긍정적인 간호 가치관을 경험하게 되어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플로리시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플로리시는 현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발하고, 기대하는 미래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구성하도록 돕는다[33]. 대학생 대상의 플로리시 증진 프로그램 적용 시 플로리시 증진과 긍정적 자동 사고 증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고[16], 예비유아교사 대상의 연구에서도 플로리시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되는 것이 확인되었다[34].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전문직관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에게 플로리시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간호전문직관[35,36]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플로리시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긍정적인 정신건강인 플로리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 지역 간호대학생 4학년으로 대상을 제한시켰으므로 일반화에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플로리시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실습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플로리시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

다. 첫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2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확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연령,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외에도 긍정적인 정신건강인 플로리시를 고려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향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Tomietto, D. Comparcini, V. Simonetti, G. Cicolini, "Nursing Education: challenges and perspectives in a COVID-19 age", *Professioni Infermieristiche*, Vo1.73, No.3, pp.131-132, 2020.
DOI: <https://www.profinf.net/pro3/index.php/IN/article/view/796>
- [2] D.Weis, M. J. Schank,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1.32, No.2, pp.201-204, 2000.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0.00201.x>
- [3] K. Hallin, E. Danielson, "Registered nurses' perceptions of their work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1.61, No.1, pp.62-70, 2008.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7.04466.x>
- [4] Y. S. Moon, S. J. Han, "Impact of self-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1.17, No.1, pp.72-79, 2011.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1.17.1.072>
- [5] H. K. Yoon, J. Choi, E. Y. Lee, H. Lee, M. Park, "Effects of decision making competency,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n turnover impul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1.19, No.5, pp.658-667, 2013.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3.19.5.658>
- [6]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Burnout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1.15, No.8, 2021.
DOI: <https://doi.org/10.21184/ikeia.2021.12.15.8.433>
- [7]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1.1, No.3, pp.127-133, 199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19910301-08>
- [8] S. H. Kim, J. Lee, M. Jang, " Factors affecting clinical practicum stress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Lazarus and Folkman's Stress-Coping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1.48, No.4, pp. 437-444, 2019.
DOI: <https://doi.org/10.4040/jkan.2019.49.4.437>
- [9] C. K. Lee, J. H. Ahn, " College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1.21, No.12,pp:142-52, 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12.142>
- [10] S. Han, "The effecting factors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1.8, No.12, pp.353-363, 2018.
DOI: <https://doi.org/10.35873/aimahs.2018.8.12.034>
- [11] M. E. Seligman,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Simon and Schuster*, p.368, 2012.
- [12] H. Y. Jin, *The influence of perceived COVID-19 stress on flourish among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moderating effects of stres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28, 2021.
- [13] H. Choi, H. Jeong, "The impact of grit, gratitude disposition and stres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1.28, No.1, pp.70-79,202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2.28.1.70>
- [14] K. E. Lee,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Vol.1, pp.37-47, 202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2.28.1.37>
- [15] J. R. Koh, J. Jeo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in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4, No:4, pp.380-390, 2022.
DOI: <https://doi.org/10.7475/kjan.2022.34.4.380>
- [16] H. M. Kang, S. H. Ha, H. A. Seo, "The Effects of a Flourish Program on the Flourishing and Positive Automatic Thought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Society of Children's Literature & Education*, Vol.19, No.2, pp. 249-269, 2018.
DOI: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Id=NODE07539422>
- [17] B. L. Fredrickson, Promoting positive affect, p. 560,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2008, pp. 449-468.
- [18] W. J. Park, *The effect of the Ego-resilienc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ediation effects of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positive, negative emotio, Doctorial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28, 2021.
- [19] S. J. Whang,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Jesus University*, Vol.14, No.1, pp. 35-54, 2002.
- [20] J. Butler, M. L. Kern, M. L, "The PERMA-Profler:A brief

-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louris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 6, No. 3, pp.1-48, 2016.
DOI: <https://doi.org/10.5502/ijw.v6i3.526>
- [21] M. Kim, B. Kim,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4, No. 2, pp. 191-215, 2017.
DOI: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788834>
- [22] E. Yeun, Y. Kwon, O.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 [23] S. S. Han, M. H. Kim, E. K. Yung,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24] M. A. Kang, S. K. Lee, "The relationship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2, No. 4, pp. 452-461, 2016.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6.22.4.452>
- [25] L. Wallace, M. P. Bourke, L. J. Tormoehlen, M. V. PoeGreskamp, "Perceptions of clinical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12, No1, pp.91-98, 2015.
DOI: <https://doi.org/10.1515/ijnes-2014-0056>
- [26] H. W. Kwak,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2, pp. 147-155,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2.147>
- [27] Y. S. Ham, H. S. Kim, I. S. Cho, J. Y. Lim,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7, No.3, pp.538-546, 201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1.17.3.536>
- [28] S. S. Hong, M. J. Park,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369-377, 2014.
DOI: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070178>
- [29] H. J. Kim, H. Y. Hong, "A Study on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Multidimensional Flourish Scal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3, No. 1, pp. 423-443, 2023.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23.23.1.423>
- [30] I. Ja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3, pp. 749-761, 2016.
DOI: <http://dx.doi.org/10.7465/jkdi.2016.27.3.749>
- [31] H. J. Park, J. W. Oh, "The relationships of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417-426,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2.417>
- [32] B. K. Seol, H. K. Kim,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in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2, pp. 305-326, 2018.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934486>
- [33] Y. Y. Park, Y. J. Jung, "The Effect of Parents' and Academic Advisers' Autonomy Support Perceived b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areer Adaptability and Flourishing", *Korean Association for Children's Media & Education*, Vol. 21, No.4, pp. 25-46, 2022.
DOI: <https://doi.org/10.21183/kicm.2022.12.21.4.25>
- [34] E. L. Garland, N. A. Farb, P. R. Goldin, B. L. Fredrickson, "The mindfulness-to-meaning theory: Extensions, applications, and challenges at the attention-appraisal-emotion interface", *Psychological Inquiry*, Vol.26, No.4, pp. 377-388, 2015.
DOI: <https://doi.org/10.1080/1047840X.2015.1092493>
- [35] I. Ja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27, No. 3, pp. 749-761, 2016.
DOI: <https://doi.org/10.7465/jkdi.2016.27.3.749>
- [36] M. Park, H. Yoo, "Influence of cultural competence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38-47,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38>

배 한 주(Han-Ju Bae)

[정회원]



- 2013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9년 8월 :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9년 3월 ~ 2020년 2월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20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MBSR(마음챙김 명상), 플로리시

조 금 이(Geum-Yi Jo)

[정회원]



- 2008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정신전문석사)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0년 3월 ~ 2016년 2월 : 대구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계명문화대
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간호, 행복, 자아존중감